

# “투명한 광주, 청렴한 서구 만들기 앞장서겠다”

### 김이강 서구청장, 부패방지운동 광주총연합 ‘청렴 공직자상’ 수상 ‘바로문자하랑께’·‘내결에 구청장실’ 등 통해 소통·행정 신뢰 높여

김이강(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의 청렴 공직자상을 수상했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은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홀에서 유관 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총연합은 공직 사회, 의료, 기업 분야를 대상으로 반부패 및 투명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결의대회에서 김 청장과 정찬영 동명병원장, 구제길 세종요양병원장이 각각 청렴 공직자상과 청렴 의료인상, 청렴 기업인상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인허가, 재·세정 분야 등 민원 발생이 많은 분야에 대해 구청장 직통 문자 휴대전화인 ‘바로문자하랑께’, 현장 중심의 ‘내결에 구청장실’ 등 적극적인 소통 장구를 마련해 행정 신뢰를 높였다. 또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청렴주의보·부



패대피령 발령 ▲부패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기간 활동 및 청렴 캠페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반부패 및 청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4등급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김 청장은 “청렴을 위한 서구청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이른바 배경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줄서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투명한 광주,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윤남식 5·18 공로자회 신임 회장 취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이하 5·18 공로자회)의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됐다. 31일 5·18 공로자회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윤남식(사진) 회장, 이흥철 이사, 이강현·김경오 감사를 선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의원 61명(광주 18명·전남 13명·서울 13명·경기 13명·부산 4명)과 임원 11명(부회장 2명·이사 9명) 등 총 72명 중 38명이 참석했으며, 각 입후보자들은 경선의 소지가 없어 찬반 투표로 선출이 결정됐다. 해당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5·18 공로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5·18 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출범 이후 정관과 규정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남용하고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회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이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회원들 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5·18 공로자회 재정 건전성 확보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개선 ▲5·18민주화운동 정신 선양 및 대표성 갖는 공법단체로 탈바꿈 ▲5·18 공법 3단계 회관 마련 등을 취임 목표로 세웠다. /주성학기자



## 광주전남·전북기자협회, 제주 4·3 희생자 추모

제주 4·3 사건 76주년을 앞두고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가 제주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류성호)와 전북기자협회(회장 강정원)는 지난달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협회 소속 기자 22명은 이날 4·3 평화기념관을 답사하며 4·3의 전개와 희생자 현황, 유해발굴 과정 등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 4·3을 알린 소설 ‘순이삼촌’(현기영 저)의

배경이 된 북촌리를 찾아 실제 학살이 벌어진 북촌초등학교·당팻 등을 답사하며 마을 곳곳에 숨겨진 비극의 실상을 전해 들었다. 앞서 28일에는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펴낸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로부터 해방 전후 제주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듣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겼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4·3과 여운사건, 5·18은 때려야 떨 수 없는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기억하고 기록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근화학원-다산베아채CC, 목포중앙고에 기부금 전달

학교법인 근화학원은 “최근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과 함께 목포중앙고등학교에 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목포중앙고등학교 방송영상과 스튜디오에서 이애자 근화학원 이사장, 김유림 총괄사장, 임인택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4천500만원과 장학금 350만원이 전달됐다. 기부 목적은 근화학원과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 설립자 고(故) 김호남 회장의 후학 양성과 인재 육성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김 회장의 배우자인 이애자 이사장, 고인의 유업을 이어받은 김유림 총괄사장, 장모생 근화건설대표의 뜻을 모아 목포중앙고가 지역의 명문 특성하고

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이애자 근화학원 이사장은 “무엇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쫓아가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힘든 시기에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후원의 뜻을 전했다. 김유림 총괄 사장은 “목포중앙고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발전기금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인택 목포중앙고등학교장은 “기탁된 발전기금으로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장흥경찰, 신학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장흥경찰서는 “최근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신학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관단체 관계자, 여성일상지킴이 및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협력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를 단속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에서의 집중 순찰로 비행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신행회 장흥경찰서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되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흥=노형록기자



## 동강대 국제교류원, 베트남 한국어학당 개소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내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학당 봄 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유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강대는 한국어학당 입학식 선발을 위해 지난해 베트남 현지에서 면접을 실시했다.

앞서 베트남 응에안 무역관광대학교, 한베산업기술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한국어학당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동강대 학적을 준수하고 품위와 공지를 지닌 연수생,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본과에 진학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고 유학생·다문화 특성화대학으로 새로운 K-컬처의 선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다기기자



## 화순군, 제79회 식목일 맛이 나무심기 행사

화순군은 31일 “지난 29일 춘양면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제79회 식목일 맛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북규 군수, 군청 공무원, 화순군의회, 화순소방서, 임업인, 지역 주민 등 450여명이 참여했으며 춘양면 고인돌 공원 내 대심리(보검재 일원) 입아 1.5ha에 산벚나무 2천500그루를 식재했다. 군은 본격화 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두

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으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반려 식물(묘목)을 전달해 큰 호평을 받았다. 구북규 군수는 “산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산을 찾는 인구가 늘었다”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 동부소방 ‘1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대응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1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대응훈련’을 KT광주타워에서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훈련은 KT광주타워 대형화재로 다수사상자(압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동부소방서·보건소, KT광주타워, 의용소방대원 등 차량 17대 및 인원 100명이 동원됐으며 ▲메시지 부여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숙달 ▲다수사상자 대응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각 유관기관 포함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체계 구축 등이 이뤄졌다. 서재건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장은 “동부소방서는 앞으로도 모든 훈련에 실천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에너지 절약’ 워크숍

한국철도(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최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에너지파크(상무공원로 131)에서 에너지 전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필요성 인식 및 친환경 시설 견학을 통한 관련 정책 학습을 위해 실시된 워크숍에는 에너지 담당자·지킴이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그린플레이’,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미래 시대 모습을 알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등 다양한 시설을 관람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의 필요성을 재다짐했다. /장은정기자



이재춘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친환경 기업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 전남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

전남도는 31일 “지난 29일까지 이틀간 2024년 상반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을 실시,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은 전남도,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요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자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종료에 따른 사실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교육과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첫 날인 28일엔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이해’, 최성문·박수용 전남도 조사관이 ‘사실조사 실무’ 및 ‘심사 사례, 면담조사 기법’이란 주제로 각각 교육했다. 29일엔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의 해



설을 들으며 여순사건 발생 주요 유적지인 순천 여순항행장과 장대다리, 여수 14연대 주둔지와 위령비 등 현지답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했다. /김재정기자

**인사**  
광주상공회의소 ◇2급 승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 김노진 ▲검정사업팀장 박시현